

월요광장



송광룡 시인·문학발행인

글쓰기가 참 어려운 시절이다. 읽는 것도 힘들다. 서점에서는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책 만드는 사람이니 걱정이 앞서야 하는데 논란 뜨면 청와대와 여의도로 시선이 쏠린다.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는데 여기가 더 힘들네. 허허, 참!” 대학을 정년하고 3년 기약으로 아프리카로 떠났던 P교수가 1년 만에 돌아와 털어 놓은 소회다. ‘마치 허방을 밟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다.

“그가 죽고 나서/ 며칠 동안 가슴에 달고 있던/ 검은 리본을 떼어/ 나는 하수구 구멍에다 버렸죠/ 모두들 슬피 울었으나/ 나는 슬프지 않았죠/ 교복을 벗어던지고/나는 바다로 나아갔으니까요// 나는 검은 리본을 잊었죠/ 땅각 위에 망령이 살아났다면/ 믿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바다에 갔다가/ 검은 리본을 만났죠/ 검고, 길고, 끈적끈적한 하수구가/ 바다에까지 혀를 대고 있었다니까요!”(안도현의 시 ‘검은 리본’)

길고 끈적끈적한 ‘검은 리본’

“그가 죽고 나서” 나도 ‘검은 리본을 떼어’ ‘하수구’에 버렸다. 당신도 그랬을 것이다. 독재자의 죽음보다는 미지의 바다에 더 설렘 만한 나이였으니. 그런데 오늘 우리는 까까머리 시절 하수구에 서둘러 던져 버린 ‘검은 리본’을 다시 만났다. “검고, 길고, 끈적끈적한 하수구가/ 바다에까지 혀를 대고 있었다니까요!” “땅각 위에 망령이 살아났다면/ 믿을 수 있었어요?”

출판사의 작은 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밤, 아니 새벽녘, 책꽂이의 그 많은 책 가운데서 왜 안도현의 시집 ‘간절하게 참 철없이’가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다. 이 시집은 2008년에 나왔다. 기억하기로, 그가 낸 10여 권의 시집 중 현재까지는 이 시집이 마지막이다. 그는 2013년 여름, 박근혜 정권 아래서는 더 이상 시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에서는 시를 단 한 편도 쓰지 않고 발표하지 않았다. 맹세한다. 나 같은 시인 하나 시 안 써도 그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다만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그 가치를 눈속임하는 일들이 매일 터져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를 바라보는 심정은 ‘참담’ 그 자체다.”

안 시인이 절필을 선언할 당시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던 박근혜 정권 초기였고, 인용한 시가 실린 시집은 그

보다 한참 전에 출간되었지만, 시인의 언중유골과 직관 앞에 새삼 모골이 송연해진다. 사실 그의 시집에는 ‘시의 성찬’이라고 부를 만한 작품들이 빼곡한데 그날 새벽, 취기 어린 내 눈에는 자꾸 이런 구절들이 어른거렸다.

“길을 달려왔으나 정작 길을 데리고 오지 못하였다는 자책이 물소리가 되어 발목을 묶는다”(‘탁족도’). “물소리에, 사람이 죽어도 고요한 세상을 꿰차고 가는 물소리에”(‘곡비’). “그런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비탈길을 힘겹게 밟고 올라가던/ 느린 발소리와 강, 하던 안간힘까지 돌아가시고 나자/ 그만// 길도 돌아가시고 말았다”(‘조문’).

한 사람이 죽고 그이가 밟던 길마저 ‘돌아가시고 말았다’는 역설이 울림을 주는 것은 길이라는 것이 기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살아서 어두운 동네 노인들 편지 읽어 주고 먼저 떠난 이들 뺏자라도 더러 봐 주고 추석 가가워지면 동네 초입의 풀 환하게 베고 ‘물고 싸움’ 나면 양쪽 불러다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심판 봐 주던’ 할아버지의 길은 ‘품들이 우복하게 수의를 해 입힌’ ‘지금도 길이라고 할 수 없는 길’(‘조문’)이 되었지만, 기억 속에서 그 길은 여전히 ‘동네의 길’이고, ‘슬프도록 아픈 길’이다(이 대목에서 왜 물대포에 사망한 백남기 어른이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우리가 걸어온 길의 존재 증명을 끝내 이루어 내지 못했다. 까까머리 시절, 바다로 가는 길목을 점령해 버린 신군부의 함대와 그 함포에 난분분 떨어져 버린 1980년 오월의 꽃잎들과 지난한 대학 시절의 ‘가투’와 6·10 항쟁과 ‘양김’의 분열과 전임 대통령의 투신과 용산이며 쌍용차 사태와 국정원 선거 개입과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혹은 거꾸로 유신독재와 이승만 독재, 친일잔재 청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제대로 기억해 낼 수 없다.

“길을 달려왔으나 정작 길을 데리고 오지 못하였다는 자책이 물소리가 되어 발목을 묶는다.” ‘올다가 다 못 올고 죽은 것들의 울음을 물소리가 대신하여 울어 줄 뿐이다(이 대목에서는 또 왜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들이 떠올랐을까).

시인이 시집 제목을 ‘간절하게 참 철없이’라고 붙인 의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으나 우리는 너무도 성급하게, ‘참 철없이’ ‘검은 리본을 떼어’ 하수구에 던져 버린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땅각 위에’ 되살아난 ‘검고, 길고, 끈적끈적한’ ‘망령’ 앞에서 지금 ‘떨떨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길이 ‘기억’이라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 아무리 슬프고, 더럽고, 부끄럽고, 화가 나는 기억일지라도 ‘기억하기’를 ‘간절하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길은, ‘기억’은 현재진행형이므로.

법조칼럼



이건호 변호사

1649년 1월, 영국 왕 찰스 1세는 전통법과 국가의 자유를 전복시키려 했다는 혐의, 즉 반역죄로 최고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찰스 1세는 최후변론에서 ‘어떠한 법정도 신으로부터 기쁨부음을 받은 왕을 재판할 수 없다’며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대함, 최고법원은 ‘국민이아 말로 모든 정당한 권력의 원천’이라고 선언하고 결국 그를 처형하였다. 신의 대리인이었던 절대군주를 법의 이름으로 처단한 것이다.

촛불시위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영국은 절대군주제의 피비린내를 씻어내고 입헌군주제를 확립하였다. 최초의 시민혁명, 이른바 ‘청교도 혁명’이다.

우리에게도 300여 년 전 절대군주에 저항하여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영국인들처럼, 불의에 항거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시위를 통해 무능하고 부패한 독재정권을 끌어 내린 4·19 혁명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 그리고 가깝게는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시위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선출 권한을 다시 국민에게로 되찾아온 1987년 6월항쟁의 역사가 있다.

다만, 당시의 역사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들고 일어섰는지를 잊어버린 채 일차적인 목표 달성에 머무른다면, 우리 사회는 어느새 제자리로 되돌아와 있거나 혹은 오히려 퇴보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4·19 혁명 당시에는 이후 정치인들의

분열과 아합으로 인해 혼란이 수습되지 못하자, 불과 1년여 만에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여 이후 20년간 우리의 민주주의는 오히려 퇴보하고 말았다. 또한 1987년 6월항쟁 이후에는 민주세력의 분열로 인해 1노 3김(노태우·김영삼·김대중·김종필)간의 4파전으로 대통령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국민의 손으로 군부세력에게 직접 정권을 맡기는 상황이 발생되고야 말았다.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참으로 오랜만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언론에 힘입어 드러나게 됐다. 이후 또 다시 우리 국민은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국회 역시 이러한 국민의 열망에 화답하여 즉각적인 대통령 탄핵절차를 논의하고 있다.

그리고 만에 하나 탄핵절차에서 국민이 기대하던 결론이 내려지지 않더라도, 현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여 밖에 남

지 않은 이상 어찌됐든 늦어도 내년 말이면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이다. 이제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자신에게 그러한 권력을 위임한 이, 즉 이 나라의 주권자는 바로 국민임을 늘 되새기며, 무엇이 자신이 속한 정파나 정당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제대로 된 정치인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뽑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을 근 30여 년 만에 또 다시 거리로 나오게 만든 사람을 그럴싸하게 분장하여 대통령으로 만들고 이후 그 정권에 부역한 이들에게 ‘국민들을 실망시킨 정권에 적어도 연이어 재선임을 해주는 일은 없다’는 명확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단지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기고

올해의 자원봉사자 대상은?



장현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요즘 드라마마다 시청률이 높다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뉴스가 화제다. 경제무역구 6위에 걸맞지 않은 전근대적인 정치행태가 부끄러워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나마 우리 국민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절망 속에 핀 향줄기 희망이 되고 있다.

헌정사상 최대 규모 집회로 기록되고 있는 광화문 촛불집회에 대해 외신들은 “평화로운 카니발 같다”며 극찬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집회가 끝난 뒤에 자발적으로 청소를 하는 수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보고 또 한번 감탄한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은 비단 광화문 집회뿐만이 아니다. 2007년 태안 기름 유출사고, 팽목항에서의 세월호 수습, 태풍 차바의 해운대, 그리고 들불처럼 타오른 광화문 촛불시위. 그 속에서 더욱 성숙해진 우리 국민의 시민의식.

시민의식은 자원봉사의 사상적 기반이다. 시민사회의 발달에 따라 자원봉사 여건이 만들어졌고, 이를 통해 활발해진 자원봉사는 다시 시민사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로 서구사회는 발전해왔다. 자원봉사 활동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고 서로에 대해 이해해 가면서 신뢰가 쌓인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이 활발하다. 즉, 자원봉사는 민주시민의 책임과 권리로써 남을 도울 뿐만 아니라 공동체(사회)와 민주주의 체제를 건강하게 만든다.

12월 5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이다. 이날은 정부가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

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매년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로 포상과 연찬회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고 있다.

광주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효령노인복지타운에도 참으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다. 지난 7년 동안 양 타운에서는 13만4957건의 자원봉사활동이 이뤄졌으며, 그 중에는 개원 초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들도 있다. 식당에서 7년째 배식을 도와주시는 ‘꽃할매 3총사’를 비롯해 주차장·갤러리·도서관·공연장 등 구석구석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주고 계신다. 이들의 땀방울로 양 타운이 우리나라 제1의, 세계 제1의 노인복지 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다.

타운 뿐만 아니라 광주시의 자원봉사자 활동도 괄목할만하다. 광주시민 147만2199명 중 등록 자원봉사자는 48만2115명(등록률 28%)으로 전국 평균 20.1%에 비하면 월등히 많다. 실제 활동인

원은 13만7730명(활동률 32%)으로 3명 중 1명은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광주하게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 개최는 바로 이 분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U대회 이후 자원봉사를 역지로 하는 것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인식하고 즐기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자원봉사자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처럼 보다 많은 시민이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광주시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뿌듯하다.

광주복지재단에서는 오는 14일 타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연찬회를 준비하고 있다. 마음 같아서는 열심히 활동해주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장을 드리고 싶다.

그러다 문득, 올해 연찬회에서는 타운을 넘어서, 광주를 넘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에게 ‘2016년도 광주복지재단 자원봉사자 대상’을 드리는 것은 어떨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본다.

社說

232만...갈수록 뜨거워지는 ‘촛불’ 열기

촛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졌지만 촛불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지난 주말(3일) 열린 6차 촛불 집회에는 서울 광화문 170만 명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232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했다. 외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하며 분노와 퇴진 요구의 강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금남로에서 열린 광주 촛불 집회에도 15만 명의 군중이 운집,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12월 내 즉각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박근혜와 부역자들을 감옥으로’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린 쇠창살 감옥이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촛불 집회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축제 분위기 속에서 평화적으로 진행됐고 이전보다 훨씬 강한 어조로 ‘박근혜 퇴진’을 강조했으며 ‘하야’가 아닌 ‘하옥’과 ‘체포’를 요구하는 피켓도 등장했다. 두 번의 담화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박 대통령이 3차 담화에서 자신의 거취를 국회로 넘기는 ‘꼼수’를 썼기 때문이다.

지난 87년 6월 항쟁 때보다 두 배나 많은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 집회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현재 새누리당 비주류는 7일 오후 6시까지 퇴진 시점을 밝히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구한 상태이며 야3당도 이미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4월 퇴진 요구에 대한 답을 최대한 미루면서 시간을 벌고 비박계의 마음을 돌릴 만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백만 촛불 민심은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입증했다. 이제 박 대통령이 몇 월 며칠에 몰리날지 밝히는 일만 남았다. 더 이상 버티면 국민의 분노는 쿵에 달할 것이다. 스스로 퇴진 날짜를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기다리는 것만이 최선책이다.

땀 올린 슈퍼특검 모든 의혹 낱낱이 밝혀야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가 5일 특검팀 사무실을 마련하면서 슈퍼특검이 땀을 흘렸다. 이번 주에 수사팀 인선을 마무리하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특검이 슈퍼특검으로 불리는 이유는 100여 명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 때문만은 아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데다 밝혀야 할 민감한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은 지금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대규모 촛불 집회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진퇴를 명확하게 하지 않는 데 대해 실망감을 담아 분노하고 있다. 이번 주는 탄핵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요구대로 7일 박 대통령이 사퇴 시한을 명확히 밝히지 여부와 9일 탄핵안이 통과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탄핵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특검 팀은 본격적인 활동으로 최순실 국정 농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것이 특검 팀에 부여된 임무이자 국민들의 명령이다. 수사 대상은 최순실 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 농단과 이권 개입,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 누설, 김기춘·우병우의 국정 농단 목인 및 직무유기 의혹 등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역시나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과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최순실 국정 농단의 배후로 박 대통령을 지칭한 만큼 특검 팀은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국민들의 생명권을 보장하지 못한 점도 꼼꼼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

탄핵안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부터는 슈퍼특검 팀에 국민들의 시선이 모아질 것이다. 특검팀은 촛불민심을 믿고 성역 없는 수사로 모든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無 等 鼓

몽족은 고대 중국 중남부에서 살던 묘족(苗族)에서 갈라져 나와 베트남·라오스 북부·태국 등의 산악 지대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다. 이중 라오스의 몽(Hmong)족은 ‘미군이 버린 군대’로 불린다. 지난주 광주전남 기자회견의 해외(라오스) 연수 일정 중 몽족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라오스 고산지대에 살던 몽족은 지난 60년대 베트남전쟁 시 미국 편에 섰다. 당시 월맹군(북베트남)은 미국군의 공습을 피하기 위해,

국 등으로 탈출하거나 난민 생활을 했다. 이후 2000년에 이르러서야 몽족의 망명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15만 명 정도가 미국으로 이민했다.

그러나 지금도 일부 몽족들은 라오스 정부의 박해 속에 산악 지대에서 살고 있다. 수년 전만 해도 한국의 구조단체들이 이들을 방문하거나 의료 등을 전달했지만 최근에는 라오스 정부가 접근 자체를 차단한 상태다.

라오스 몽족

일반인 임금의 절반 밖에 받지 못하고 취업도 제한되는 등 차별을 받고 있다. 라오스 몽족이 여타의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들과 달리 미국을 지원한 것은 북베트남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6차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온 나라가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친박계는 물론 퇴진을 놓고 오락가락하는 비박계, 이들 새누리당 모두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정치는 줄이라고 했다. 국민이 밝힌 촛불의 대열에서 몽족은 처절한 탄압을 받게 된다. 미국은 전쟁에 몽족을 이용했음에도 도움을 주는 데는 소홀해 몽족 상당수는 태

라오스 몽족들은 동일한 일을 해도 공습을 피하기 위해, 월남으로 남진하는 대신 라오스와 캄보디아 밀림을 거쳐 월남(남베트남)을 공격하는 우회로(호치민 루트)를 택했다.

미국은 호치민 루트를 찾기 위해 수백만개의 포탄을 라오스에 퍼부었지만 허사였다. 급기야 고엽제까지 살포했지만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결국 몽족이 나서서 호치민 루트를 찾아 효과적인 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하지만 1975년 미국이 베트남전쟁에서 참패하고 라오스가 공산화되면서 몽족은 처절한 탄압을 받게 된다. 미국은 전쟁에 몽족을 이용했음에도 도움을 주는 데는 소홀해 몽족 상당수는 태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편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